

사드배치, 양보나 흥정대상이 아니다

투항주의 패배주의 국헌문란 항적세력 박멸, 원칙대로 관철해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김정은이 기겁을 하고 중국이 발끈 하는 가운데 좌편향 언론의 선동과 악성 유언비어를 업고 지역주민(?)이 극렬반대를 하고 야권 중북 반역세력이 결집하여 정치투쟁 대신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먼저 북한은 적대하장으로 사드배치가 핵 참화를 들쭉날쭉하는 근원이라며, 남한 야권, 중북, 반역세력에게 반대투쟁을 지령하고 사드배치 시에는 물리적 대응으로 사드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SLBM미사일 시험 공개로 핵전쟁 위협을 실증하려 들었다.

한편 중국은 북경인근과 동북 3성에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초장거리 레이더와 한국은 물론 유사시 미군 및 UN군의 증원을 차단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까지 실전배치 해 놓고 선제타격을 공언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2010.2.24)”면서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게 좋겠다.(2014.12.11)”고 끈질기게



주장해 온 박지원과 사드배치 자체를 “국회인준을 받아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물색없이 나대는 안철수 호남당과 심상정당이 발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더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네, 성주 군민(?)을 데리고 광에 배치 된 미군 사드기지를 둘러보네 하면서 허둥지둥 갈광질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아니다. 국가안보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군사기밀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

동서고금을 통틀어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정답은 원칙고수와 정면 돌파에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탈발광을 한다고, 중국이 샌트집을 잡는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고 박지원 안철수 따위가 반대를 한다고 타협할 일이 아니며, 지자체가 막가파식 저항을 한다고 흥정을 할 대상이 아니며, <야권> 중북 반역세력의 공세에 굴복할 사안은 더 더욱 아니다.

김정은의 핵 전쟁위협에 굴복하는 자는 투항주의자요, 중국의 반

대에 타협하자는 세력은 곰팡나가는 사대주의자요, 김정은 협박공갈에 동조 영합하려는 야권의 중북 반역세력의 발호 때문에 물러서자는 자는 비열한 패배주의자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 된 자는 파렴치한 기회주의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으며, 여의도 정치 건달들은 물론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모든 공직자를 역시 <헌법을 준수>하겠노라 선서를 한 <갓>들이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 된 자는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 어떤 명분, 어떤 목적이든 국가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필수적 의무사항인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드배치를 무작정 반대하면서 국헌을 문란케 하고 북한 김정은은 주장에 동조 영합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려는 세력은 내란, 외환유치, 여적 반역으로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존립영속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

자문 백승목 대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왜 개헌인가?” 세미나 개최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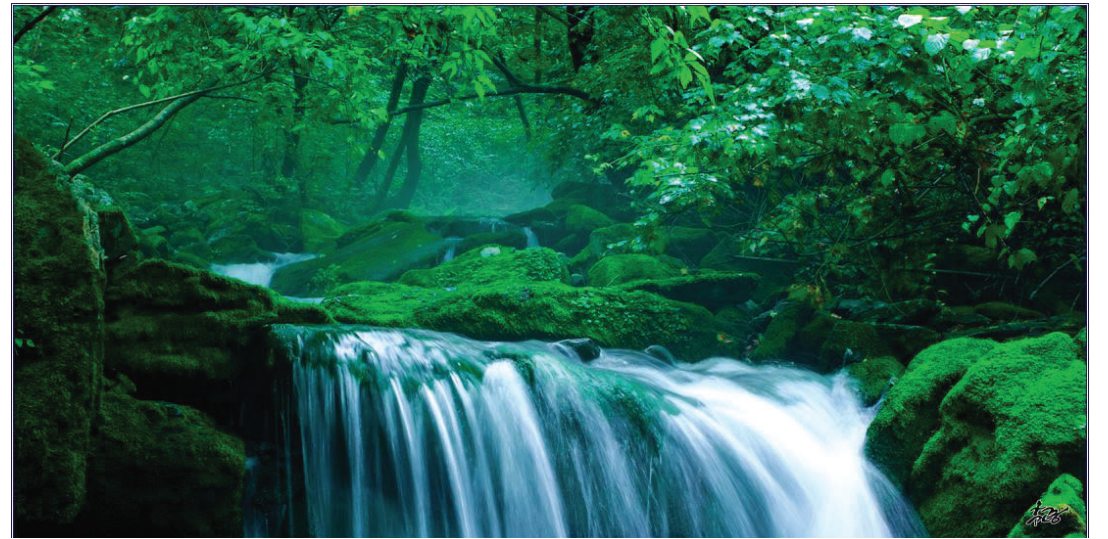


육, 미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제도 탓만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던지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이 “왜 개헌인가?”란 주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강사로 첫 개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 박세환 전 재향군인회 회장,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이해훈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하였고, 500여명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또,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헌은 국가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중장기 계획도, 성장동력도, 선택과 집중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사회적 경쟁력, 삶의 의



싱그러운 마음

몸과 마음이 푸르고 싱그럽고 싶은데
어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혼탁해질까?

자리를 떠나 돌아보면
씻어지지 않은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다.

몸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정일 지라도
마음만이라도 오염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했나보다

이 또한 세월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나보다

오늘도 환경과 분위기속에
휩쓸려 퇴색 되어가는 마음을
깊은 숲 맑은 물에 씻으려 해 보지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 이기에

그 진리를 오늘도 깨달아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다.

국방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한·미 공식발표 “군사적 효용성·국민안전 최적지”...지역주민 이해 당부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성산리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

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는 우리 군의 충정을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광복71주년 8.15기념식 및 제3회 신학 세미나 주제: 성경원형(본질)회복



지왕철 목사



한홍교 목사



이범성 목사



민정식 목사



이의근 목사



신한철 목사



곽영민 목사



조정근 교수



김길중 교수



박형철 교수

- 일시: 2016년 8월 12일(금) 오전11시(기념식), 오후1시(세미나)
- 장소: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 종식, 간식, 교재 제공 ● 문의: 02-2608-2190 ● 홈페이지 http://www.hankibo.co.kr/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장 한홍교 목사 총무 곽영민 목사
한기보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5, 6층(화곡동,호용B/D)

분간 못하는 미친개는 몽둥이를 들어야

사드 배치 결정 잘한 일...기회 되면 핵무기 개발도 착수해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 서도 전기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미군철수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 북한의 핵폭탄 제조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뭘 하겠다면 사사건건 반대다. 자신들은 못하면서 남이 잘하는 것엔 배 아파 한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엄포를 놓는데 기웃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비난이다. 이것이 작금의 야당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대체 나라 걱정은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방이 뭔지, 군대가 뭔지, 전쟁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버젓이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를 없애는 것이 옳다. 생각 없이 제멋대로 제단하고 입이 달렸다고 대책 없이 말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는가.

제발 정치권은 입을 닫고 있었으면 좋겠다. 양심이 있다면 5초만 반성해보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방관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이젠 순전히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당하기를 학수고대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것 전쟁을 경험한 어



른들이 매일같이 걱정하는 말이다. 백번 천번 말해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다 보니 결국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할 사드배치 지역까지 노출하고 만 것이다. 이러다보면 국가 기밀까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노출시키는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드 배치 지역은 사실상 군사비밀 및 보호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때 특정 지역을 방출이나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언론도 국가의 존망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국익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까지 부화뇌동하면 나라 망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드 배

치는 물론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국은 연일 핵무기 개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살마 나한테 쏘겠어?”라는 생각인지 맨몸으로 막자는 식이다. 이렇고도 국민안위를 말할 수 있는지, 이렇고도 국가안위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말만 무성한 채 책임과 의무는 게을리 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패망직전이다.

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위적 주권행사에 대한 오만 불순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적해 비판해야 옳다.

똑똑히 보라. 북핵과 각종 미사일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이들 나라와 입을 맞추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즉 강도를 막기 위해 집안 담배락을 높이 켜고 CCTV를 설치하더니 이웃에서 “왜 그런 짓 하느냐”고 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맞아봐야 아픈 줄 알고,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는가. 유비무환이라 했다. 향후 나타날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및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비난도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 병사들이 죽고, 얼마나 더 핵공포에 시달려야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야당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길래 미치광이 김정은은 보다 박근혜만 몰고

늘어지려고 하는지 이제라도 삼류 정치의 틀 속에서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 북한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동, 스커드, 무수단 등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무기들은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포함되는 살상용 무기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더욱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무기개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영원히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야당 정치인들은 말해보라. 지금으로서는 맨몸으로 막던지 아니면 가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혹시 입으로는 미군철수를 부르짖으면서 내심 미국이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도 큰 착각이다.

첨단 무기는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향후 어떤 무기가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격무기 체계는 사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이중의 방어막을 이루게 될 사드는 방어 체계만을 갖추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사드 배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다. 부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를 거론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기밀로 다스려야 한다. 군 당국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사드 레이더 가동 시 민간인 지역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인체 유해성 문제 해소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던 될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이후 남북이 같은 상황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작은 납치를 당했다. 그 러면서도 통일이라는 명제 때문에 참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었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침투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가 지금 보니 틀린 말이 아니다. 김정은이 미친개처럼 날 뛰는 상황에서 몽둥이라도 들지 않으면 물려 죽을 수 있음을 야당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나라 없는 설움을 당해 보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

합동, ‘동성에 차별금지법’ 대책 헌법 개정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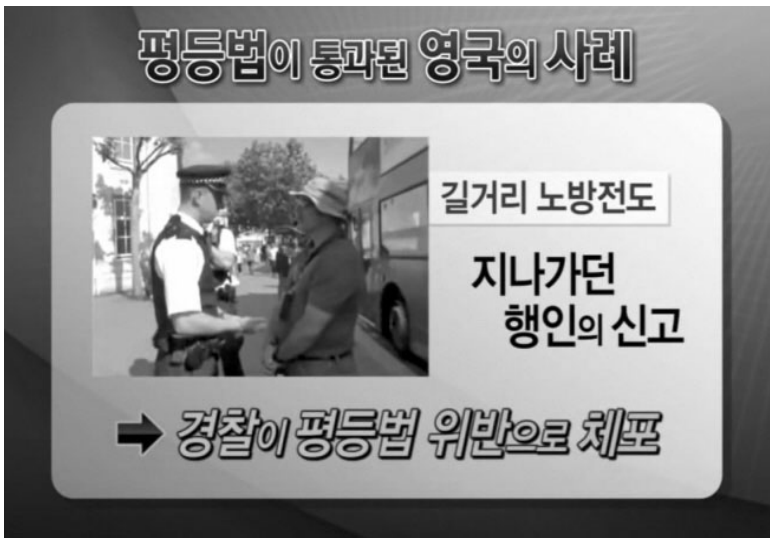
합동, ‘동성에 차별금지법’ 대책 헌법 개정안 발표

‘동성에 및 종교차별금지법’ 등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평가 예상 합동 헌법개정위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응한 선제적 대책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수교단 및 교회언론회 등이 긍정적 찬사를 보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가 지난 11일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서울수도권 권역 목사장로들을 대상으로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 정치 제4장 제3조(목사의 직무) 7조를 신설하여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해 동성애 반대를 헌법에 명시했다. 최근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 목사안수, 동성결혼을 인정한 헌법 개정에 비하면 한국 보수 장자 교단 다운 면모를 분명히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교회언론화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다른 교단들도 동성에 및 차별



▲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시행이후 노방전도를 하는 목사가 체포되고 있다.

금지법에 대비한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제2장 제5조(교회의 사명)와 6조(교회재산)을 신설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명기해 종교 차별금지법의 유일권원 주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교회 설립을 노회에 신청할 시 지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가입토기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76조의 (재판관 관할 인도 전

문, 인터넷, SNS상으로 유폐하면 처리하고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 총대들은 사전에 공개재판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불건전한 언론들과의 유착을 끊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으로 나누어 의견을 개진되었다.

헌법개정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4일 대구 동신교회와 18일 관암장로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영호남 권역 공청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장합동 납골당 뇌관 건드려 소송폭탄 예정

총성교회, 현 박무용 총회장 및 김창수 총무 등 사기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 예정

2009년 당시 매각위원장 김영길 목사와 위원 유장춘 목사 등 관련자들 줄 고소 정관조작 관련 은금재단 박상범 부장 등 실무자까지 포함 예장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납골당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대거 형사고소 될 전망이다.

은금재단 현 이사장인 박무용 총회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인 김창수 총무, 총성교회에 납골당 매각위원장이었던 김영길 목사와 매각 위원인 유장춘 목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준비가 끝나서 곧 접수할 것이라고 총성교회 측이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황규철 전 총무와 은금재단 직원 박상범 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까지 고소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총성교회측은 “우



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차마 대응하지 못했던 은금재단 관계자들의 민·형사 소송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금재단이 납골당 설치권자명의변경에 대한 서류조작에 서부터 은금재단의 정관조작까지

법원에 제시했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것이 대형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든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총연합회(한신연)가맹교단

2016학년도(후기) 합동신학 · 학술원 원생모집(주 · 아)

편목 및 총회 가입안내 (남 · 여)

모집학과 및 자격

1. 목사 예비 교육과정(대학부/주간 · 야간)

학 과	학제	지원자격
신학과	4년	목회와 선교사명자로 세례를 받고 신학연구 할 분(고졸이상)
목회학과	4년	시명자로 세례를 받고 복음전파에 사명있는 자로 학력 연령불문

2. 목사연장 교육과정(대학원부)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목회신학연구원 (M · DM)	3년	대학 및 신학교 졸업자로서 목회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 자 (신약신학 · 구약신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선교학 · 신전신학)
신학연구원 (HJM)	2년	일반대학과 신학대학 졸업자 B.D나 M.D학위 소지자

3. 학술원부

학 과	학제	대 상 자 격
신학 · 목회전공	3년	신학연구원대학원졸업자로 목회 3년 이상 경력자로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4. 통신학부

신학에 관심있는 분으로서 시간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신학공부를 하시길 원하는 분으로 졸업 후 신학과에 편입하여 연장공부 후 목사 및 전도사로 서무할 수 있습니다.

학 과	학제	대 상 자 격
신 학 과	4년	고졸이상으로 목회에 뜻이 있고 확실한 사명이 있는 자
목회학과	4년	학력, 연령 불문으로 확실한 소명이 있는 자

본교의 특징



원장 지 용 운 목사

- ▶ 본교는 한신연 기맹 교단으로 졸업 후 본 교단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안수 받음
- ▶ 각종 장학제도 있음.
- ▶ 선교사 지망자는 100% 해외선교사로 파송함
- ▶ 본교는 보수적 교단이면서 참신한 목회자들 로 구성된 교단으로 교권주의를 배격하며 성서로 돌아가자는 이념으로 설립된 교단임.
- ▶ 본교 졸업 후 총회, 기관, 신학교, 해외 등 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음.
- ▶ 여목사 안수제도 있음.
- ▶ 우수한 학생을 본교 교수로 채용함. 산업체 대학에서 공부할 분은 4대보험 가입자 (9개월 이상 직장인) 가입자라야 함.

※군소신학졸업자로 정규학사 학위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 연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② 졸업증명서.....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④ 자필이력서..... 1부
- ⑤ 반명함판사진..... 3매

전형방법

- 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격자 결정
- ② 원서교부 : 수시모집
- ③ 개강일 : 수시입학
- ④ 방학없음(1년4학기.조기졸업가능)



학생처장 김만호 목사

주요 교수진

- ① 지용운 교수(상지대, 강남대, 서울신대원 (전)호원대 교수)
- ② 유성상 교수(인양대학교, 동대학원, 복원교회 원로목사)
- ③ 한순자 교수(서울대, 숙명여대원, 총신원 (전) 삼선종교장)
- ④ 김국경 교수(고려대학교원, 연세대학교원, 합동신목 총회장)
- ⑤ 전병환 교수(성공대, 동대학원, 강남대 교수)
- ⑥ 최완수 교수(한남대학교원, (전)서구기독교연합회 회장)
- ⑦ 한석규 교수(국민대, 웨스트민스터신대원 학점은행 교수)
- ⑧ 이홍선 교수(총신대신학대학원, 총신대사회교육대학 교수)
- ⑨ 남기형 교수 (성결대, 서울신학대원, (전)예성서울지방회 회장)
- ⑩ 김만호 교수 (학생처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합동신학.연구원.학술원

(교역자 · 선교사양성기관)

명예원장: 유성상 박사 원 장: 지용운 박사 학생처장: 김만호 목사

인천시 서구 석남로107(2층)

TEL:032)581-9098 FAX)578-3252 (H.P) 010-9062-8098

합동신학 · 연구원 · 학술원

동암역에서 (버스) 7, 70, 700, 903, 103번 이용 거북시장 하차 석남 소방서 맞은 편 인천지하철 2호선 여성회관역, 2번 출구 150미터 (2층: 합동신학, 성은제일교회)

후원 : 개신교연합방송(kpntv.kr)

예장개혁(박영길 총회장), 교역자부부하기수양회 개최

교단부흥발전 세계선교 진력하는 총회되길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총회(이하 개혁신 총회장 박영길 목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캔싱턴 설악비치리조트에서 교단 내 목회자 부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는 주제로 제34회 전국교역자부부하기수양회를 개최, 교단부흥발전과 세계선교에 진력하는 총회가 되길 굳게 다짐했다.

총회장 박영길 목사는 수양회와 관련 개회사를 통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다. 쉬운 축복이며 재충전의 기회이며, 따라서 쉬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에너지다"라면서 "이번 수련회의 3박4일간의 참신한 교역자 부부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고, 목회현장에서 지친 육신과 영적체를 다시 회복하는 수양회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대회장 전상업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바쁜 목회일정과 산적인 교회문제, 성도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쳤던 여러 동역자들이 긴장을 늦추고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 휴양지 속초에서 교역자하기수양회를 열게 되었다"면서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해 함께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

하며 더욱 연합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양회는 개회예배와 경배와 찬양, 저녁집회, 친교시간, 새벽집회, 세미나, 체육대회, 폐회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예장개혁측은 3박4일간의 부부하기수양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상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개회예배는 박영길 목사의 개회사와 전상업 목사

의 대회사, 최승국 목사의 환영사, 성재운 목사의 기도, 김진수 목사의 성경봉독, 부영교회 살롬성가대의 찬양, 박영길 목사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자'라는 제목의 설교, 최희용 목사의 총회광고, 심광석 목사의 대회광고, 조경대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각각 섬기는 교회와 일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알파크루시스 대학교 권다윗 총장은 현재 신학준학사, 교회실용음악학과, 상담학과, 신학박사, 기독교학석사, 신학석사,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했다.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홍향표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면서 말세지말의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떠한가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 사도영성의 특징은 예수님의 영성인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마6:33~34),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요16:33, 요일5:4),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마7:21, 24-25),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마16:24~25, 갈2:20),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롬8:29~30)고 설명하고, 사도영성신학원은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면서 영성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호주 알파크루시스대학교 총장 권다윗 총장의 축도로 종강예배 및 교수소개를 끝으로 학사일정을 마쳤다.

사도영성신학원 2016 봄 학기 종강예배 드려

사도들의 영성회복과,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재림을 대비할 때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서울시 동작구 본동 490번지 SH아파트 B1층 소재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홍향표 목사께서 2016 봄 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홍성익 교무과장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신학생 이춘우 집사가 기도를, 이수학 학생회장의 감사인사와 김동현 총무의 성경봉독(마 6:31~34), 박용숙 목사(우슬초)가 특송을, 권다윗 목사(호주 알파크루시스대학 총장)는 "하나님의 미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임용환 행정총무의 봉헌기도가 있는 후 허식 목사(한국경목총회 상임회장, 증경총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학장 홍향표 목사의 인사 및 교수소개가 있었다. 교무과장 홍성익 목사의 광고에 이어 권다윗 총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호주 알파크루시스 대학 총장 권다윗 총장의 호주 신학교의 소개와 학사 일정을 안내했다. 호주 알파크루시스대학교(AC, Alphacis College)는 1948년 설립된 Commonwealth Bible College를



장목의 발전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AC로 전환하여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인 복음주의 신학과 목회에 필요한 역동적인 교육, 다문화 사회의 리더 양성과 훈련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드니 파라마타 본교를 중심으로 퀸스랜드 주 브리번과 서부 88호 12번 퍼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다. AC는 호주 교육부 인정 정식 신학 교육기관인 The Council of Deans of the Theology의 정회원 학교라며

설명했다.

또한 한국 신 학부(Korean Campus)는 1997년 권다윗 박사가 주도해 개설하였으며, 호주 교육부 자격 기준을 통과한 검증된 교수진에 의해 다양한 학위 과정(한국어 강의)을 개설했다. 그동안 1,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기독교 리더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6년 2월부터 교육부로부터 자체 평가권(self-accrediting authority)을 부여받아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사)한기보협 광복 71주년 8.15 기념식 및 제3회 신학세미나 개최한다

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이하 한기보협)는 오는 8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에서 "광복 71주년 8.15 기념예배 및 제3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기보협은 해마다 국가 기념일인 3.1절, 6.25전쟁기념일, 8.15광복절에 산하 48개 교단과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예배를 드린다. 이 나라의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은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8.15 기념식을 통하여 기독교가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원교단간의 애국정신 고취와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와

회원교단 상호간 친교와 우애를 다진다.

이번 3회째 맞는 신학세미나는 한기보협 산하기관인 신학위원회(위원장 한홍교 목사) 주관으로 하는데, 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이미 1.2회를 통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회원들이 지방에서도 적극 참석해주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향후 세미나를 지속 발전시켜나가 어디 내보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에 공신력 있는 세미나 자리매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성경원형(본질)회복을 펼쳐왔던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역사적 보수만을 외쳐왔던 서구 기독교의 몰락을 한국교회가 답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원형(본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여 왔고, 신학 세미나를 통하여 성경원형(본질)을 찾아내는데 신학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에 광복 71주년 8.15 기념식을, 중식 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3강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광영민 기자



경찰청 한국경목총 최현기 총회장, 진해경찰서 위문

기도로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믿음이 돈독한 박창식 진해경찰서장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최현기 목사, 직전회장 허식 목사, 부회장 김창룡 목사, 이창식 목사, 박동호 목사,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등 임원들은 지난 7월1일(금) 오전 10시 진해경찰서 박창식 서장의 초청으로 환영을 받는 가운데 위문하고 박 서장과 경찰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한경총 총회장 최현기 목사와 임원들은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으며, 진해경찰서 박창식 서장은 관할지역 진

해의 아름다운 관광지 이곳저곳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한 진해경찰서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한국경목총회 우영문 목사, 박영미 목사, 진봉자 임원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한경총 부회장 김창룡 목사는 진해경찰서와 지역주민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박창식 서장과 경찰직원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이날 진해경찰서 박 서장은 관내에 꼭 필요한 예배처소와 경목실을 만들어 경찰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자 한경총

총회장 최현기 목사 일행은 박서로서 환영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최 총회장과 일행은 귀경하면서 조현배 청장과 박창식 서장의 돈독한 신앙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총회장 최현기 목사, 상임회장 허식 목사, 부회장 김창룡 목사, 이창식 목사, 박동호 목사, 총무(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중앙위원 우영문 목사, 박영미 목사, 진봉자 사모, 동행취재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www.jtntv.kr) 편집국장 정기남 목사 등이 동석했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깨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제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통증지병 집회중 전포 기도으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 등 부	오전 9:00 오후 12:00
금요새미기도회	오후 9:00	중 . 고 등 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수용자들, 시원한 냉면 맛에 감탄! 목사님 제 생애 이런 맛난 냉면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북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 서 전 수용자 대상으로 뜻 있는 점심 식사가 진행됐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는 중구금교정기관으로 일명 악명 높은 교도소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사회에선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 대해서 오해와 부담스러운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민육기 소장(경북북부 제 2교도소)은 교정위원 이기학 목사에게 수용자들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점심을 통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따라 이기학 목사는 창녕 주민교회 정석중 목사에게 민 소장의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정 목사는 창원 예향교회 홍준기 목사와 창녕선교교회 노광수 목사의 동참을 요청하자 주님의 심장으로 수락했으며, 봉사는 창녕군자원봉사협의회(센터장 이윤희)와 창녕주민교회, 창원예향교회의 성도들 34명이 봉사활동에 자원하여 시원한 냉면 천 그릇을 만

들어 수용자 1인당 2~3인분과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창녕군 자원봉사협의회의 한 봉사원은 수용자들이 냉면을 통해 사랑을 알았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민육기 소장(경북북부 제 2교도소)은 냉면을 먹어 본 수용자는 이렇게 맛난 냉면은 처음이라면서 어떤 수용자는 이날을 기다리면서 여름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또한 민 소장은 (경북북부 제 2교도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 안의 수용자들에게 냉면을 제공하여 주신 정석중 목사, 홍준기 목사, 노광수 목사에게 감사 증을 전달하고, 이 행사를 주선해준 이기학 목사에게 수용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홍준기 목사는 교도소에 성경필사노트 80권을 기증하고 수용자들이 성경쓰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기

쁨과 자유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포항지사 이기학 기자

평택대학교 음대 마드리갈 싱어스 LA 공연

지난 7월16일(토) Zipper 콘서트홀에서 열려



평택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과 교직원, 평택시민들로 구성된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단장: 김형기 교수)가 지난 7월16일(토) 저녁 7시30분에 미국 LA에 있는 Zipper Concert Hall에서 공연을 가졌다. '평택 마드리갈 싱어즈'가 미국에서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는 소규모 혼성합창단으로, 2014년 평택대 음악학과 교수인 김형기 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평택대학교 학생, 교직원, 평택시민들로 이루어진 '평택 마드리갈 싱어즈'는 다른 합창단과 달리 카운터테너라는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합창단의 틀을 깨고 더욱 다양한 소리와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다.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는 2014년 12월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미국 LA에서 열린 신년음악회 초청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펼쳐 찬사를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 소통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1912년 미국인 선교사 아더 테판 피어선 박사님에 의해 서울에서 피어선기

념성경학원이 설립되어 1981년 평택으로 이전하여 올해로 창학 104주년과 평택 35주년을 맞이하는 전통과 젊음이 병존하는 활기찬 대학이다.

진리, 정의, 봉사를 교훈으로 하는 평택대학교는 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청수 선교사(이정철 목사)에 대한 문제제기 이어져 관심집중

불륜 및 후원 교회 교인 빼가기 등 여러 의혹 일어

천안 창성교회를 담임하는 이청수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본명 이정철)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이청수 목사에게 유부녀 여성도와의 불륜, 후원 교회 교인 빼가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목사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청수 목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당사자'들로서 이 목사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 불륜관계 만들어 제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불륜 당사자인 유부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청수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불륜관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인 이청수 목사가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일 할게 남아서 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를 내며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 그러자 이청수 목

사는 내게 차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 차 열쇠를 주니 나를 산속에 있는 찻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이성끼리 데이트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대화를 했다"면서 "이청수 목사는 그날 이후 내게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소위 내게 작업을 걸었고 결국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깊은 관계가 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청수 목사는 내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며 내 생일에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기도 했고 자신과 중국에서 같이 살자고도 했다. 당시 그는 사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내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청수 목사는 다른 여 성도와도 깊은 관계였다고 한다. A씨는 "이청수 목사와 내가 새벽에 같이 자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가 이청수 목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여자가 이청수 목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청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창성교회의 여 성도를 비롯해

다른 교회 여자도 있었다. 그래서 이청수 목사와 내가 늘 다녔고 그럴 때마다 이 목사가 사과해 다시 만나곤 했다.

이청수 목사와 만나는 동안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했다"면서 "그러던 중 이청수 목사가 수많은 거짓말로 나를 속여 온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인 B목사는 "이청수 목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10년동안후원해준 교회의성도들까지 빼돌려

B목사는 "교회 여 전도사의 추천으로 이청수 목사를 알게 돼 약 10년 이상 후원해 왔다. 초기에는 매달 70만원씩 후원했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 후원액은 가감됐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목사가 나 몰래 뒤로 성도들을 불러 따로 만나고 교인을 빼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악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B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청수 목사는 자신이 중국 공명에서 2만명 출석하는 교회를 담임했다고 하며 스스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제 한국의 목회자들을 크게 변화시킬 역할을 할 B목사를 목숨 바쳐 도우라고 하나님께 보냈기에 중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B목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니 이청수 목사는 중국에서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한 적도 없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여자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현지에서 활동할 수 없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B목사가 이청수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B목사는 "전에 내가 미국으로 집회를 갈 때 이청수 목사에게 강단을 맡기고 갔다. 그때 이 목사가 2주간 설교를 하며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 자신의 신봉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섯 가정을 포함해 약 30명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했다"면서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후원해준 교회목사의딸까지미혹해 딸이힘들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목사는 "이청수 목사가 내 딸을 미혹해 딸이 평

장이 힘들었다. 딸에게 중국을 거쳐 중동으로 건너가 순교하라는 말을 하며 딸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목사는 "이청수 목사의 본명은 '이정철'인데 그는 주로 가명인 '이청수'로 활동한다. 중국 현지에서는 '리칭'이라고 불리운다"면서 "여러 교회들이 이청수 목사의 실체를 파악해 그에게 피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청수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며칠에 걸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적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청수 목사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목사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A씨와 서로 합의하에 함께 살기로 했기에 관계를 가져온 것"이라며 "물론 목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아내가 다시 합치기를 원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이제 와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7월 정기 조찬 기도회

박종희 목사 "어른 사역 찬양의 힘 매우 크고 힘 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이항영 목사) 7월 정기 조찬 기도회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지난6일 오전8시 원패밀리교회(장경일 목사)에서 이항영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 되었다.

장경일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을 부르고 김형수 목사(토폰스선한목자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어서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 선교교회)가 시편 19편을 읽고 '노인과 환자 사역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박종희 목사는 자신이 헌신한 독거노인 사역을 소개하면서 "어른 사역 찬양의 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매주 1회 방문 하

면서 위로 차 인사를 하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친밀해졌습니다. 그 후 자선 공연, 미술, 음악, 영어교실, 요리교실, 꽃꽂이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 시간엔 *사우스베이 복음화를 위하여, *미국의 영적 회복과 평강을 위하여 *목회자들과 가정과 교회들을 위하여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원패밀리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들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2016 하계수양회 공고

대표회장	직전회장	대표부회장	상임총재	연수원장	상임총재	상임총재	상임총재	상임대표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강사단장	사무총장	자문	자문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요셉 목사 (목포중앙교회)	 이주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총회장)	 박형희 목사 (성현교회)	 황원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정기남 목사 (신동방송대표이사)	 강요셉 목사 (순복음복합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박동훈 목사 (대신총회부총회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홍향표 목사 (경북총회사무총장)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교회)	 박영민 목사 (등불교회)	 이병성 목사 (직전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자문	자문	자문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부회계	공동회장/회계
 허식 목사 (경북총회총회장)	 박양우 목사 (경북총회 서기)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호 목사 (벨렐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박애사 목사 (국제금식기도원 원장)	 박웅수 목사 (주성장각장예배교회)	 임해숙 목사 (수원합동침례교회)	 노은총 목사 (은총기도원)	 김창기 목사 (운영이사)	 이상중 목사 (새문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배정호 목사 (믿음교회)	 백은성 목사 (안산지사)	 김부경 목사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 (조예교정교회)		
공동회장	공동회장	상임총무	상임총무															
 김창숙 목사 (예능부 기자)	 한사라 목사 (문화부 기자)	 송춘석 목사 (예능부 부국장)	 송정숙 목사 (문화부 기자)															

-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2일(금) 1박 2일
- 장 소 :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상임이사 최낙현 목사 시무)
-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010-7405-9191

- 준비물 :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회 비 : 1인 50,000원
- 찬조금 : 하나은행 758-910292-36807 예금주 정기남

● 일시 : 2016년 9월 1일(목)~2일(금) 1박 2일

● 장소 :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상임이사 최현 목사 시무)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010-7405-9191

● 준비물 :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회 비 : 1인 50,000원

● 찬조금 : 하나은행 758-910292-36807 예금주 정기남



지저스타임즈 & CJTNTV방송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사무실 032)574-6574

팩 스 : 032)578-8712

대표이사 : 010-5468-6574

이 사 장 : 조강수 목사

사 장 :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 정기남 목사

사무국장 : 박영민 목사

계시록 2장 강해(20)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 철장권세를 약속하신 주님

육신에도 채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지난호 이어서...〉
계속하여 그들은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으니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모든 생활이 형통하며 세상에서 쫓기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리가 되어 대형교회 등에서 중심 교리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장로교에서 이 교리를 받아들였고, 현재 교단과 관계없이 이 교리가 퍼져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고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리를 그리스도의 교리로 알고 있는데 왜 사탄의 교리일까요? 성령으로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 때 옥중서신으로 골 1:24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육체에 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채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 죄 값인 사람을 주님이 대신 맡아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죄 문제가 끝난 것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교리이고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 뜻도 고통을 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뜻을 소뿔성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보니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행 14:22).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 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행 5:41).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은 것으로 인해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깊은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교회들이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있으므로 주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찾아 오셔서 그 사탄의 교리를 받지 않고 그 교리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 쫓는 이적을 자기의 심볼 마크로 삼아서 자랑하며 장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최면술, 사술을 부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귀신을 탈래서 내보내는 것 등의 거짓능력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이적, 권능을 행하여 신자들을 미혹, 사로잡는 것인데 여기에 대표적 이단 JMS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영에 의해서 속이는 것이 사탄의 교리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로 교회를 음행케 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영생할 것을 전부 불태우게 하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계시록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의 잣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앞에서 예를 들은 것들인 ‘사탄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교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탄에 의한 인간사상, 인간중심을 실어서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인용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낳고 뿌리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재림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를 순수하게 열망하는 사람은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고 정답을 알면 환락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세벨이 가르치고 행음케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던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환란은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가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때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에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집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25절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티라 교회까지 거쳐 온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여러 분이 받아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게 금촛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재림을 맞이 하되 그분을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양의 아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를 입은 것은 순교한 자들에게 임해주는 옷이 되므로 순교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교회가 금촛대 교회입니다. 또한 순교자에게 금면관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이 부활할 때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영광, 곧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서 두아티라 교회까지 거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게 한 그에 따른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은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하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순간까지 잡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 순교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방송 www.jtntv.kr에서 정만국 목사의 방송진행의견이 있습니다.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지난호 이어서...〉
젓먹이가 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했다면 이 젓먹이가 뛰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도리어 “얘야! 너 좀 제발 좀 뛰지 말고 양전히 있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이고 밭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 3: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고도 대저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니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2~14).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젓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젓 먹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 때 젓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마 24:19).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계속 젓이나 먹고 밭을 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죄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마 24:45~47).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밭을 먹여야 합니다. 스스로 밭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떠다 먹여 주는 젓먹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신분과 선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어떤 신분과 지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이 앞서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면 먼저 뜻을 세우고 의대에 들어가 인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됩니다. 법관이 되고자 하면 먼저 뜻을 세우고 법대에 들어가 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됩니다. 이 세상사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을 알고 믿을 때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옵니다.
② 성장하는 비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자 노력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당신은 빛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안에서 빛이 된 것을 믿고 빛처럼 살고자 노력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그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당신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음을 믿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조영만 목사
(JTNTV방송 운영이사)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로 인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믿기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당신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1:30~31).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후자를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신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③ 은혜로 얻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영계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신을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볼일 없게 삽니다.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편없게 삽니다.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삽니다.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삽니다. 자신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며 삽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교”(골 2:13).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혜원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신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직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침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정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월 밤 10시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8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빌

〈지난호에 이어서...〉

구원의 서정과 성막

1. 교파마다 왜 구원의 교리가 다른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관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지침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렉션(Direction)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찾아 가려면 정확한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이처럼 정확한 디렉션이 필요하다. 그렇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다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구절이 없다. 그러다보니 인간들은 성경에

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들은 구원의 단계들을 스스로 연구하여 여러 가지 확설로 교리를 만들어내었고 이 교리 때문에 서로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며 싸우다보니, 교파가 갈라지는 등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원의 교리만이 절대진리인 양 서로 자기들의 신화, 신조만이 옳다고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마 15:14)고 말하고 있다.

각 종파나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왜 서로 다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구원의 길인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은 ‘믿습시다’ 한 마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Step by step)으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들이 왜 교파마다 다르며, 순서들이 왜 서로 다른가?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로서 이것은 큰 수치이며,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라 아니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접했던 것만이 항상 옳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며 능자이시다. 그 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종결 사업이며 인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과정을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선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Message)를 놓친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막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서정’임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

을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9장 9-10절에서 ‘이 성막 속에 있는 비밀을 개척할 때까지 말려 두셨다’고 하셨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척할 때까지 말려 둔 것이니라’

2.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불확실한 구원관으로 인하여,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 그 결과 교회에 구원보다는 교회성장만 강조하는 기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성도들은 물질 만능주

의에 함몰되어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성도들은 구원의 목표로 가는 정확한 방향(Direction)도 모른 채 ‘믿습시다’ 한 마디로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고 세속적인 모습들만 보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보여주셨던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단계 단계마다의 영적 의미는 없어졌고 그저 막연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포퓰리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값싼 기독교, 실존의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개척자요, 구원자로 오셨다.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4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の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다) 위정척사사상(爲政淸思想)

위정척사사상은 양반 유생계급이 성리학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이를 강화 정비함으로써 새로이 대두한 서구열강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한 사상이다.

위정척사란 ‘정’을 지키고 ‘사’를 배격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정은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국가를 말하며 숭상의 대상이고 ‘사’란 왜와 양을 뜻하며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

위정척사사상가들은 서양의 교역과 사용을 국가적으로 금지케 하면 서양의 문물이 소용없게 되고 그들과 교역하는 일이 없게 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어찌할 수 없어 돌아가게 될 것이라 믿었다.

위정척사사상은 나를 지켜서 남의 침략을 막는다는 보수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사상체제이다. 위정척사사상은 일제하 의 병합운동으로도 연결되었으며 민족의 현실적 위기의 문제를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改革모임

해결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한국 근대교육의 수용

1) 외국정세의 파악과 소개
개화기 신문화의 유입은 외국에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은 1876년에 김기수를 중심으로 한 75명의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4년 후에는 김홍집 등 58명을 수신사로 파견하였고 1881년에는 박정양 등 60여 명의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들은 일본의

군사, 교육, 산업, 행정 등의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면서 신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 정부는 청에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60여 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1881). 이들은 천진에서 서양식 무기제조법과 그 조련법을 배웠다. 개화이후 조선인의 해외유학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간 유길준이 그곳에 남아, 후파자와 유계찌가 세운 경음의숙에서 수학한 것이 최초이다. 유길준은 그후 미국에 유학을 하여 서구의 각종 문물을 돌아보았다. 귀국 후에는 서유견문을 써서 서구의 문물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883년에는 김육균이 서재필 등 61명을 선발해서 일본유학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2) 서양인 교사의 초빙

조선은 1881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새로운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임오군란 후 정부는 관제를 다시 개혁하였으며 1883년에는 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있던 독일인 뮐렌드르프(P. G. Von Mollendorf)가 동문학을 설립하여 통상아문의 부속 기관으로 두었다.

동문학은 할리팩스를 주무교사로 하여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곳에서 수학한 학생들은 정부의 자강 추진정책에 실무자로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1886년에 육영공원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도 서양인 교사를 채용하였다.

육영공원의 교사는 미국인 힐버트, 길모어, 뱅크 등 3인이었으며 중국인 당소도의 교사로 있었다. 육영공원은 1894년 영국인 허치슨이 인수하여 교명을 영어학교로 바꾸고 수업을 계속하다가 갑오개혁 이후 관립영어학교의 하나로 개편되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 영어로 말하고 영어 책으로 교재를 택하였다.

목사코너(78)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하라” (엡 5:14-18)

먼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것은 육신이 쿨쿨 잠자는 것을 가리킴이 아니요, 막 14:38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자들임을 가리킵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영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전혀 영의 소원과 달리 잠포대 기도하는 것이 잠자는 자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팍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건만 세 제자들은 이와 전혀 달리 주님이 왕 위에 오르시면 자신들이 영화를 보리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여기서 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ἐξαγοράζω)로서 속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몸 바쳐 피 흘린 그 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전을 치르고 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이 준비된 재물이 될 수 있는 신앙에 오를

수 있기까지 또 외부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골 4:5) 신령한 시간을 아무런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거나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려함이라.’ 서있다, 즉 stand firm이 전 투용어로 일상화한, 용감 무뎌 하듯이 우리 신앙도 일상각오, 순교신앙으로 서서 7년 대한민국 날에 이기기 위함입니다.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요. 이들은 주님의 뜻, 즉 엡 5:12 말씀같이 주님이 제물로 바쳐진 것같이 우리도 순교 제물로 드러지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그리스도 재림의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엡 2:22), 그래서 결국 재림 주 앞에 영광된 흠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는 자들이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하라.’ 여기서 술은 일반 소주 같은 술이 아니고 사 29:9-12에서 말씀한 눈과 마음이 무거워 가려진 자를 가리키며 그래서 그들은 주 재림 예언을 깨달을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은 마 24:48-49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는 자들이 곧 술 취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자는 마음이 무거워 방탕하는 자요(눅 21:34) 눈이 무거워 잠자는 자(막 14:39-40)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표는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으로 말하는 자요(행 2:4) 또 그 말의 내용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행 2:11)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중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063)244-2374 010-9696-6377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기독교대한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도회 오후 9시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웅석 목사 (우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관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 방문기

유소년팀 110개 4,500명, 지도자 250여명이
활동 중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



안산목회자축구선교단(이하 안목선)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된 동아시아 선교대회를 마친 후 그동안 후원하고 기도하며, 이번 선교대회를 주관한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강성민 선교사 - 기독교화 소명2 모겐족의 월드컵 주인공)에 방문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방문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여년 만에 길을 열어 주셨다. 방콕에서 동아시아 선교대회를 마친 안목선은(단장 이오종 목사) 약 3시간을 이동하여 아름다운 임마누

엘축구선교센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5만여 평의 아름다운 대지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현장을 보며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 센터에는 현지 태국 목사들과 청년들이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1기쁘고 즐겁게 환영하며 맞아 주었다.

안목선은 한국에서 가져간 기념품과 물품들을 전달하고, 7대7로 15분 경기 3쿼터를 통해 한국과 태국 목회자들이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정을 나누었다.

경기 후 안목선 박두환 목사(전임감독-안산평촌교회)의 헌신과 태국 목사들의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진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열어 모두의 입과 배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삼삼오오 대화의 장을 나누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손짓, 발짓, 눈짓을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이 웃으며 그리스도의 사

람을 나누었다.

마지막 태국 목사는 다음 기회에 한국에서 만나자며,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쳤다.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 강성민 선교사는 축구공으로 저글링 기네스기록을 가진 실력자요, 능력자였다. 그랬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강선교사는 20여 년 전 축구공 하나를 들고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태국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현재 유소년팀만 110여개 4,500여명과 지도자만 250여명이 활동하는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로 세워 주셨다.

기자가 방문한 센터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 5만여 평의 푸른 대지 위에 아자나무들과 열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감동이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황무지와 같던 이 땅을 이토록 아름답게 하기 위해 흘렸을 강성민 선교사의 눈물과 땀과 기도, 그리고 이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기자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아직도 필요한 시설(센터 하우스 5개동,



에어컨, 전기 설비 등)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다. 이 아름다운 현장에서 태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축구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들이 이어져, 센터를 통하여 4,500여명의 유소년들과 250여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 태국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태국의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40만 명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태국 사람은 16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남아국가 사람들의 특성처럼 태

국 사람들도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성민 선교사를 통하여 지난 20여년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에서 작은 도마뱀과 함께 한 방울 쓰는 아름다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안목선 여러 목회자들(성산교회-이오종 목사, 비전교회-강장원 목사, 안산평촌교회-박두환 목사, 임마누엘교회-김종화 목사, 평강교회-이재오 목사) 등이 망고나무 등 수십 그루의 기념식수를 하고, 강성민 선교사의 비전과 계획을 들으며 많은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지저스타임즈 안산지사 백운성 기자

한국. 태국. 라오스, 동아시아 선교대회

한국과 태국, 라오스 등 좋은 교류의 장이 되는 복음증거의 기회로

안산목회자축구선교단(단장:이오종 목사 - 이하 안목선)에서 지난 6월 27일 저녁 8시에 12명의 목회자들(이오종, 강장원, 박두환, 임득선, 손영수, 박종호, 문용길, 박흥기, 이재호, 김종화, 백운성, 노장덕)이 안목선 해외선교위원장인 강장원 목사(비전교회)의 인솔하에 인천 공항을 떠나 심한 기류를 만나 마치 바이킹을 타는 듯한 스틸 넘치는 하늘의 여정을 지나 방콕에 도착하였다. 방콕에서 캄보디아 안성태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문형식 선교사, 방콕 강성민 선교사와 방콕에서 합류하여 집을 풀었다.

첫날 대회 첫 번째 경기는 태국 팀과 두 번째 경기에서는 라오스 비엔티엔 축구협회장이 소속한 라오스타이 방콕으로 원정을 와서 안목선 팀과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교류를 나누었고, 세 번째 태국 유명 신문사 팀과 함께 선교대회를 열었다.

비록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의 목회자들과의 선교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경기 결과는 1승2패로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로서 경기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승패를 떠나 좋은 경기력으로 감동을



주고,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날에는 라오스팀과 다시 한 번 대결하여 전날 1:0으로 패하였지만 다시 격돌하여 3:2 펠레 스코어로 승리하였다. 또 다른 태국팀과는 2:0으로 승리하며, 안산목회자 팀은 좋은 경기력으로

두 팀 모두에게 승리하며, 기본 좋은 경기를 마쳤다.

이번 동아시아 선교대회에는 라오스의 축구협회 유력인사가 소속한 팀과 태국의 유명 신문사 팀 그리고 태국의 유력한 군인 장군도 초청되어 함께 경기를 하면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전도 대상자

로 만났지만 선교 일선에 계신 선교사들의 사역 속에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근 축구공 하나로 세계가 하나 되듯이, 축구공 하나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로 만나 우정을 나누고, 파이팅을 외칠 때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어 모두가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 강성민 선교사(영화소명2 모겐족의 월드컵의 주인공)와 안목선 단장 이오종 목사(성산교회) 안목선 해외선교위원장인 강장원 목사(비전교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과 태국 그리고 라오스를 이어가며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였다.

또한, 태국 최대 기독교 CCT교단이 19개 노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도 축구리는 도구를 통해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하며, 그 가교 역할을 임마누엘축구선교센터와 안산목회자축구선교단이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진행될 이들 가운데 안산목회자와 함께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오는 10월에 라오스 축구팀이 한국에 대회 차 방문한다고 하여 그 때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한국에서 다시 안목선과 1승1패의 전적으로 끝난 경기를 다시 한 번 갖기로 약속하며, 대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였다.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창립30주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박용숙 목사, 유승모 김정수 안수집사, 백종심 서민숙 권사를 임직

주성청각장애인교회(담임 박용숙 목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8의 6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에서 '창립 30주년 및 유승모 김정수 안수집사, 백종심 서민숙 권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정우진 목사(농아지방회 부회장/남원예바다농아교회)의 기도와 강령회 목사(농아지방회서기/서울새누리농아교회)가 성경(요 9:1~3)봉독을, 주성청각농아 수화 찬양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박진구 목사(전주 안디옥교회)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귀한분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김영삼 목사(특수지방회 회개/안산농아인교회)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이진수 목사(농아지방회총무/전주예바다농아교회)사회로 3부 권면 및 축하의 자리가 시작되어 신명선 권사(안산제일교회)가 수화통역을 맡은 가운데 김병택 목사(농아지방회증경회장/서울비전농아교회)가 안수임직자에게 권면을, 임혜숙 목사(농아지방회증경회장/수원할렐루야농아



교회)가 권사임직자에게 권면을, 정휘준 목사(농아지방회장/목포에바다농아교회, 한기능 총회장)가 격려사를, 김재호 목사(한국기독교농아총연합회 직전 회장, 서울지구총농아교회), 박성환 목사(옥수동루터교회 원로)가 축사를 전하고, 본 교회의 김정수 안수집사가 답사를 했다. 이어 이우복 목사(농아지방회증경회장/부산예바다농아교회)의 축도로 창립 30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순서를 마쳤다.

한편 박용숙 목사(우슬초)는 2006년 9월 24일 부임하여 창립 20주년을 맞아 취임예배를 드렸으며, 그 해 11월 주성교회가 성남청각장애인교회와 통합하여 주성청각장애인교회로 개칭하고, 2007년 12.9일 개칭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을 위하여 많은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나라확장을 위하여 달려왔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한다.



제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석수) 수련회 공고



주제 : 대신 석수총회의 발전방향과 개혁신학



총회장 황원찬 목사



부총회장 광동훈 목사



서재주 교수

민혜균 교수

박재봉 교수

1부 11시~ 12시, 개회예배 : 사회 부총회장 광순종 목사, 기도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목실장 박재봉 목사,

설 교 : 총회장 황원찬 목사, 특별기도 : 이형근 목사, 한신영 목사 축도 : 총회장 황원찬 목사

2부 중식 및 친교 : 신학대학원대학교 식당(부패) 12시~1시30분까지

3부 특별 세미나 : 오후 1시30분 ~ 3시 30분까지 사회 민화규 목사(교수)

1. 석수총회의 개혁주의신학(50분), 강사 : 서재주 교수(조직신학),
2. 한국장로교회에서의 석수총회 역할(30분), 강사 광동훈 교수(실천신학)
3. 석수총회의 발전방향 (30분) 강사 : 총장 황원찬 박사

- 총회본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406번길 30
- 총회 안내 및 임시상담 : 광동훈 목사(H.P 010-7405-9191), 031-470-3333

■ 일 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 11시 ~ 15시30분

■ 장 소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예배실

■ 흥보 및 동원 : 강남노회, 서경노회, 중부노회, 인천노회,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원우회

■ 후 원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화양동장로교회, JTNTV 지저스타임즈, 원우회



■ 靑松 건강칼럼(507)

‘오존’과 대기오염, 오존(Ozone)의 두 얼굴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았던 ‘고등어’를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논란으로 소비가 위축된 측면이 있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즉 수협(水協)중앙회가 중심이 돼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롯데마트 120개 매장과 수협 판매장에서 고등어를 30% 싸게 판매했다. 정부는 이 기간 ‘고등어구이’ 무료 시식과 판촉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病주고 藥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987년부터 제시해왔으며, 2013년에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기환경표준센터 정진선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산 불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남쪽으로 3000km를 이동해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난 6월 21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 서쪽의 중국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우리나라의 공기 질(air quality)은 100점 만점에 45.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173위, 그리고 초미세먼지 노출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는 174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는 한국의 100만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359명으로 일본(468명)이나 EU 주요 4개국(412명)보다 낮았지만 2060년에는 상황이 역전된다고 한다.

즉 2060년 한국인 100만명당 대기오염(大氣汚染)으로 인한 조기(早期)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다인 1109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307명),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4개국(340명) 등 다른 모든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초미세 먼지(PM 2.5)와 지표면의 오존(ozone)

농도 증가 때문이다. 즉 현재는 조기 사망이 대부분 초미세 먼지에 의한 것이지만, 2060년에는 오존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비율이 7~1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오존(O₃)은 산소 분자(O₂)와 산소 원자(O)가 결합한 산소의 동소체(同素體)로서 상온에서는 약간 푸른색을 띠는 기체(氣體)이다.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oxein*을 따서 명명되었다. 공기 속에 0.0002부피%만 존재해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자극적인 냄새는 강한 산화력(酸化力) 때문이며, 이 같은 산화력은 살균, 악취제거 등에 사용된다.

오존은 상온 대기압에서는 푸른빛의 기체이지만, 영하 112도 이하에서는 검푸른 액체, 그리고 영하 19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된다. 오존은 불안정하여 이원자의 산소로 분해 되려는 경향이 있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또는 압력이 낮아질수록 강해진다.

오존은 사람에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두 얼굴을 가진 기체이다. 지상에서 11~50km 위에 있는 20km 두께로 비교적 농도가 높은 온존이 분포하는데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즉 성층권(成層圈)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紫外線)을 대부분 흡수해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호막 역할을 하므로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이다.

지구를 둘러싼 기체층을 통틀어 대기권(大氣圈)이라고 한다. 대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1km까지를 대류권(對流圈), 그리고 성층권(成層圈, 11~50km), 중간권(中間圈, 50~80km), 열권(熱圈, 80km에서 대기가 끝나는 지점까지)으로 나뉘며, 성층권에 오존층을 이루고 있다.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피부암, 백내장 등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 국제사회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議定書)를 체결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CFC·염화불화탄소) 등의 화학물질 배출을 규제했다. 납구상공의 오존층 파괴현상은 1985년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수전 솔로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986년 CFC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임을 밝혀냈다.

솔로몬 교수 연구팀이 위성사진과 기상관측기구 등을 활용해 2000~2015년 성층권 오

존량을 측정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남극 상공 오존층 구멍 크기가 2000년에 비해 400만km 정도 축소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즉 15년새 인도(India) 면적만큼 줄어 남극 오존층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에 방출된 CFC가 자연 소멸하는 2050~60년쯤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표(地表)면에서 생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존재이며, 흡입했을 경우 맥박과 혈압이 감소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정도가 심하면 폐(肺) 손상을 유발하며, 눈에 노출되면 염증이 생기기고 한다. 만약 반복해서 오존 농도가 높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관지염, 심장병, 폐기종, 천식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심하면 천식과 호흡기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991년부터 97년까지 8년 동안 전국 7대 도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오존 농도가 10ppm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도 0.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존 농도가 심하면 일기예보를 할 때 ‘오존 주의보’를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오존도 증가한다. 오존을 만드는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태양광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태양광선이 지표까지 내려오는 여름철에 오존도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지표면 오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화력발전소 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二酸化窒素, nitrogen dioxide)증가로 인하여 이산화질소(NO₂)가 가진 산소원자 2개와 공기 중의 산소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산화질소는 질소산화물 중에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물질이다.

고농도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어 기침, 두통, 헉기증, 구토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한편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 carbon monoxide)는 무색, 무취의 맹독성 기체로 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많이 발생한다. 체내 산소 운반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hemoglobin)을 카르복실-헤모글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뇌조직 및 신경계통에 피해를 주어 운동신경, 근육마비, 사고능력 저하 등이 피해를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이므로 맑은 공기를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야 한다.

오존 농도가 올라갈 것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제도가 ‘오존 주의보’이다. 즉 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1970

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존 경보제를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입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입된 오존주의보(注意報) 발령 단계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9월 기준치에 따라 ‘오존 주의보’, ‘오존 경보’, ‘오존 중대경보’ 등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 전체를 100만으로 놓았을 때 오존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체적비 단위를 사용하며, 0.1ppm/h를 넘어가면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가장 낮은 단계인 ‘오존 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h일 때 발령되고, 눈과 코 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등이 나타난다.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h일 때 ‘오존 경보’가 발령이 나며,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 감소 등이 나타난다. 가장 높은 ‘오존 중대경보’는 오존 농도가 0.5ppm/h일 때 발령되며, 기관지 자극과 폐 기능 저하 등이 생긴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 건강한 사람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후 2~5시 사이는 한낮 기온 상승과 함께 오존의 농도로 증가하므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활동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존은 호흡기 외에도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므로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공기 중의 오존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매연 통제,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 자연 상태의 오존은 지구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알맞은 양만 생성됐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오존의 농도를 원래의 자연적 상태로 존재했던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오존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 즉 식물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산소, 포도당 등을 만들어내는 광합성(光合成)을 한다. 이때 이산화탄소 대신 오존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허물게 된다. 세포벽이 파괴되면 식물 세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벽, 미토콘드리아 등 내용물이 흘러나와 잎에 회백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 이처럼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인간도 식물도 병이 생긴다.

성인은 하루 평균 약 1만 리터(1)의 공기를 마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장기 어린이들은 더 많은 공기를 호흡하므로 오존 같은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다. 오존은 가스 형태의 기체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황사마스크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가능한 한 실내에서 머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3박자 건강”-자유시간과 건강!(61)

“정기 건강진단
생활양식 점검 건강의 지름길”

황성주 박사



암과 성인병의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예방의학의 개념도 질병의 발생을 막는 1차 예방에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2차 예방, 그리고 질병의 가능성까지 막는 건강증진의 특차예방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스컴을 통한 단편적 건강지식이 활개를 치면서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요즘 웅만하면 병원에는 종합검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이용기간이 단기 2~3일에서 보통 일주일로 임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요즘에는 임상병리, 방사선, 초음파검사까지 27개 항목의 검사를 3시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건강진단시스템이 보급되어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소모와 높은 의료비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합검진을 권장하기보다는 발병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검진이 먼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집적성이

높은 질병을

경계하라!

발병위험군은 각종 직업병에 걸리기 쉬운 산업장 근로자들과 가족집적성이 높은 질병을 가진 환자의 가족들이다. 산업장 근로자들은 그나마 정기적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족집적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경우는 의사나 환자가 무시하기 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가족집적성은 부모·자식, 형제·자매간, 부부간에 나타난다.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에 가족집적성이 높은 질병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위암, 유방암, 대장암이다. 가족 중에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발병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발병위험자인 셈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필히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질병의 위험요인을 과감하게 생활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무시할 경우 부자간에 위암으로 같이 입원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기가 막힐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부부간에 일치된 사망양을 보이는 질병으로는 심장병과 암이며 부부가 같이 앓는 대표적인 질병은 고혈압과 관절염이다.

가족집적성에는 유전적 요인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족간에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동일환경요인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양식의 철저한 진단은 물론 정기종합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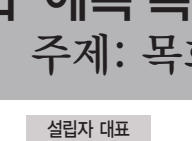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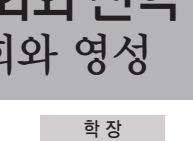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점영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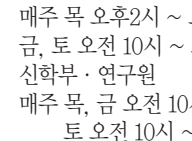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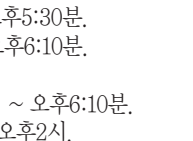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에녹부흥신학원

설립자 대표	이사장 총동맹회장	학 장	사무국장	이사진	이사진
					
박명민 목사	주찬양 목사	임순학 박사	김경애 전도사	박예스티 목사	정기남 목사

교 수 진	교 회 음 악	히 브 리 어	영 생 학	오 략 배 설	기 독 주 의 찬 송 이 름 / 가 기
					
박명민 교수	박명민 교수	김성기 교수	박경자 교수	주찬양 교수	김영진 교수

성경학 총배교기	모세오경	성령론	아고보서 신론	종교개혁기	복음주의론/심기
					
박홍진 교수	주찬양 교수	제갈요한 교수	심기석 교수	모성훈 교수	김선우 교수

• 수업일: 기독교예배과정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금, 토 오전 10시 ~ 오후6:10분.
신학부 - 연구원 - 매주 목, 금 오전 10시 ~ 오후6:10분.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학술원: 매주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찬양치유교실 - 매주 목 오후1:30분 ~ 오후5:30분.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중식 및 지방분은 숙식제공

장소: (인천)등불교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에녹부흥신학원

목회자와신학생을위한

제1회 에녹 목회와 신학 강좌

주제: 목회와 영성

설립자 대표  박명민 목사	학 장  임순학 박사
--	---

신/학/생/모/집/안/내

· 수업일: 기독교예배과정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금, 토 오전 10시 ~ 오후6:10분.
신학부 - 연구원
매주 목, 금 오전 10시 ~ 오후6:10분.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학술원: 매주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찬양치유교실 - 매주 목 오후1:30분 ~ 오후5:30분.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중식 및 지방분은 숙식제공

강 사  박성길 선교사	- 프 로 필 - · 미국 실버선교회 부이사 · 해외 선교사 및 현지 지역사 전문 교육강사 · 미얀마 두란노 신학대학 강사 · 와싱턴 성경신학 대학 강사 · 한국 퓨리탄 신학 유나이티드 영성훈련 강의 · 미국 순회집회 강사
--	---

■ **일시: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까지.**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둘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려 줌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겔 11:19-20)

·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장성철,**
·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병회	토요일 5:00
수요 예배	오후 7:30	청년회	토요일 6:00
세 배 대 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요일 11:00
금요일예배	밤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00

에 배 기 간 안 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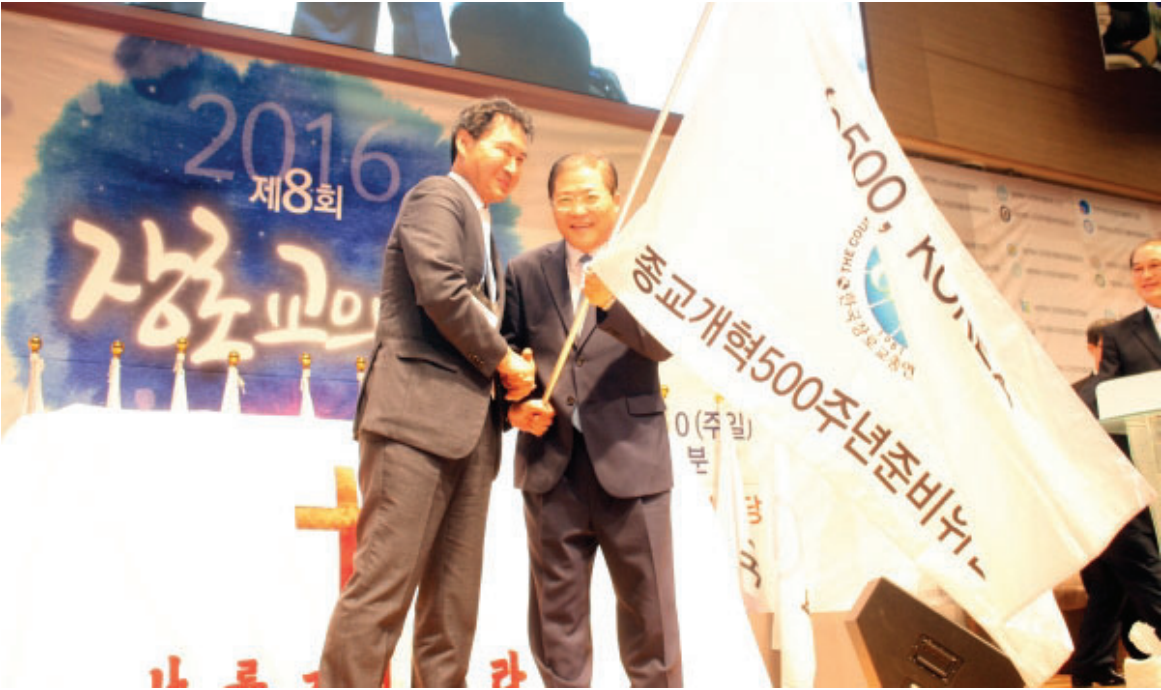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개원대학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ile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 본부장 소강석 목사 위촉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8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가 내년에 개최하는 종교개혁500주년대회의 준비위원회 본부장에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가 위촉됐다. 한장총은 지난 7월 10일 오후 새에덴교회에서 개최한 ‘제8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위원회 본부장에 소강석 목사를 위촉, 위촉패와 엠블럼을 전달했다. 또한 ‘탈북민 사회적응 및 생업지원’ ‘통일인재 양성’ ‘북한 지역 농축산복합영농법 교육’ 등 탈북민들을 품고 통일의 사다리를 놓는 사역을 적극 펼쳐나가기 위한 ‘한국교회 5000기도단’을 출범시켰다.

‘한국교회 연합하여 국민출애굽, 복음통일 이루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장총 관계자들과 한국장로교회 성도 등이 대거 참석, 새에덴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연합과 통일’을 외쳤다. 백남선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 교회와 성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인구의 감소, 북핵의 위협 등의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워지고 하나 되어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민족



의 복음통일을 이루자”고 말했다. 합동측 총회장 박무용牧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벧후 3:11~1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성경만이 우리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하는 기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끝없는 욕망으로 서로가 싸우는 이 세상에 평화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국신측 문효식 피어선측 김희신

합동동선측 엄인제 합동선측 김국경 총회장은 각각 기도 인도자로 나서 ‘100회 총회를 맞이한 장로교회의 회개와 하나됨’ ‘국정안정과 건강한 사회’ ‘진정한 개혁으로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의 미래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가진 성찬식 집례에서 준비위원장 채영남 통합측 총회장은 “거룩하신 성찬 앞에 우리 모두 주의 몸 된 교회를 잘기갈기 찢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 되기를 선언하자”며 합동측 박무용 총회장과 고신측 신상현 총회장, 기장측 최부록 총회장을 등단시켜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

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며 성도들과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들은 기도 후 서로 께안고 악수를 나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여성삼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국장로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 교단 총회장들을 비롯한 모든 순서자와 협력기관장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은 개혁선교측 박남수 총회장이 진행한 마지막 순서 ‘하나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불신자와 타종교인이 찾아오는 중독사역전문 교회

30여년째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새움교회’

서울시 구로구 공동에 소재한 새움교회는 예정합동 서울 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총신신대원 출신의 중독전문가인 김도형 담임목사와 더불어 3명의 중독전문 박사와 13명의 중독전문 교역자, 그리고 120여명의 전교인이 합력하여 30여년째 중독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역 초기, 대부분의 교회가 알코올 중독자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새움교회 김도형 목사는 알코올 중독자는 ‘강도만난 이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이웃으로 책임감을 다지며 오직 한길, 중독자들만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중독치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왔다.

오직 복음과 전인치유를 통해 치유된 많은 중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건강한 삶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들 중독자 대부분은 불신자나 타종교인으로, 중독에 대한 대안이 없어 교회로 상담을 온다는 것. 특히 김 목사는 CITS(Christian International Temperance School, 기독교국제금주학교)라는 중독치유 상담 학교를 1992년 설립, 그동안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에 양성해 왔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몽골, 필리핀 등지에 지부를 두고 중독문제와 관련한 선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을 설립하여 중독전문



목회자 및 선교사 배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교수진으로는 총장 박영를 박사, 김철해, 김광채, 김형중, 정성구, 권정희, 김도형, 최정미, 유승우, 김진순, 정남복, 주일경, 김태석, 정인찬, 김승학 박사 및 교수 등이 동참하고 있다.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은 6학기 M.Div 과정과 Th.M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면 미국의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목회(신학)학 석사 학위를 받고 강도사 고시를 거친 자에 한해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 안수를 주고 있다. 국내 사역으로는 서울 CITS 본부를 통해 중독 치유 재활 선교센터를 운영하며, 충남 부여에 ‘남성 중독 치유 교육원’과 전남 진도에 ‘여성 전용 중독 치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새움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복지부 인가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사’ 민간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1급과 2급 자격증을 발급하며, 미국 알코올 약물 중독 전문

상담자협회(NAADAC.org) 한국기독교대표기관으로 국제 중독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남서울대학교, WD대학교, 을지대학교와 같은 국내 중독재활 복지학과가 있는 학교와 MOU를 맺고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김도형 목사와 새움교회, CITS는 향후 전 세계의 중독문제, 상담, 예방, 치유, 교육에 대해 순전한 복음과 전인치유를 통해 기독교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차근 차근 내실을 기하며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다. CITS에서는 수시로 알코올 약물 및 각종 중독자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료상담과 신청을 받으며, 중독분야 전문 사역을 원하는 분들의 무료 상담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2016년 9월부터 시작하는 중독 전문가(국제, 국내)자격 취득 교육에 참여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중독치유를 원하는 중독 당사자들과 가족교육 신청도 접수하고 있다. 문의 02-2612-0636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하 나기연)이 12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기연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국가방위를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사드배치지역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도 남북이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중이며, 북핵·미사일이 위협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치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은 정부의 THAAD체계 배치 결정을 적극 환

나기연, ‘정부의 THAAD배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가방위 위한 당연한 조치, 논란의 대상 아니다.

영한다. 1. 한·미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2. 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하였고, 지난 6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여 km까지 상승 비행 후, 400km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도

(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HAAD 체계의 효용성, 중력의 반대 등을 운운하며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방위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단호한 결의를 과

시해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오히려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드리는가 하면, 언론은 주권국가의 언론답지 않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국가방위를 포기하고 북한에 굴복하자는 주장과 같으며 이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AN/TPY-2 레이더는 2기가 이미 일본에도 배치되어 있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전 국민이 단호한 결의를 과

되는 미사일방어 체계 실험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상호주의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반대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벌써부터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거론하며 THAAD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남북이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중이며,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각한 너무나 사치스러운 푸념이다. THAAD체계의 배치지역은 오직 효과적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고려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배치지역 주

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5. 정부는 THAAD 체계를 배치함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방위 차원에서 군사적 운영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억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다양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일 나라사랑기독인연합 상임의장 권영해, 류광수 집행위원장 박정수, 김대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기도하는대로 꿈꾸는대로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2016

2016년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꼭 전도합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AM 11:00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PM 06:30	새벽 기도회 AM 05:00
주일밤 찬양 예배	PM 07:30	어린이 예배 일요일 AM 08:30	오후 기도회 PM 03:00
삼일반 예배 수요일 PM07:30		중고등부 예배 일요일 PM 02:00	저녁 기도회 PM 09:00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PM 09:00			철야 기도회 AM 00:30

담임목사 이요셉

·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하계수련회 개최 공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강사 장한국 목사
(예정진리총회장)

- 일시: 8월 22일(월)~24일(수)까지
- 장소: 컨싱턴리조트(충주점)
- 주소: 충북 충주시 양성면 산전장수1길 103
- 전 화: 043-840-2728

노회연락처 / 010-9621-9627(박민규목사)

- 준비물: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회 비: 1인 50,000원
- 주최: 대한노회, 협찬: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한노회/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8:31)

총회장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경남신학원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질 목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총회 총대여러분, 각 노회 여러분 올 여름에도 건강하시며 섬기시는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 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총회장 : 이 규필 목사 H.P 010-7474-3174
동천교회 : 02) 854-1326, FAX 496-0181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홍수 때에라도 성경: 시편 29편 11절 찬송가 414장

홍수는 악인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악인들을 제거 함으로써 의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힘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힘은 환난과 핍박 중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평안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굳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시편 30편 1절 찬송가 306장

본절은 여호와께 대한 찬송과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구절로서 본시 전체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다윗이 깊은 곤경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물과 같이 깊고 터널같이 어두운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고 찬양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목: 주는 나의 치료자 성경: 시편 30편 2절 찬송가 249장

다윗은 부르짖으매 라는 말을 사용함로서 자신의 질병이 단순한 의술로써 회복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병이 의술로는 고치기 매우 힘든 상태였다는 증거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고치기 힘든 중병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의학, 어떠한 치료제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치

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모두 맡겨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죽겠다는 말보다는 성경: 시편 30편 3절 찬송가 134장

이 스올은 무의식 상태로 있는 지하의 세계입니다. 이는 곧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만 하면 죽겠다는 소리를 말 끝에 습관처럼 붙여달고 삽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는 말 보다는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복 된 언어, 긍정의 언어로 내 상황은 어떠한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무릎이 됩시다.

제목: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성경: 시편 30편 4절 찬송가 289장

본절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에 함께할 것을 다윗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는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등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맞고 알은 자만이 그 사랑을 또한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거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써 나누고 누리며 사는 사랑인이 됩시다.

제목: 노염은 잠깐 성경: 시편 30편 5절 찬송가 471장

노염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며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인간의 통회함을 보시고 그 분노를 풀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나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성경: 시편 30편 6절 찬송가 359장

본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실수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의 삶의 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때 자기 자신을 신뢰한 자만심을 고백한 구절이 본절입니다. 자만은 불경건이며 어리석은 자의 특성입니다. 이 자만심은 울방에서 엄중히 금지되었으며 이것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을 한 가지 비법은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본다면 자만하고 실수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목: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 성경: 시편 30편 7절 찬송가 277장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을 떠나 계신 것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만을 꺾으시기 위해 잠시 진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다윗에게 임한 것은 평강 대신 근심이었으며 건강 대신 죽음의 질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는 그 길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진노의 목적 성경: 시편 30편 8절 찬송가 366장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어 졌을 때 이는 삶에서도 미워서가 아니라 내리는 진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그 화가 돌이켜질 것입니다. 매를 실컷 맞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복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목: 주신 이후에도 성경: 시편 30편 9절 찬송가 424장

이는 논리적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의 논리는 자신이 일찍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간구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논리적인 간구 그대로 회복된 이후 임종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던 사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해서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제목: 거저주시는 성경: 시편 30편 10절 찬송가 595장

다윗이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기쁨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제목: 극도의 기쁨 성경: 시편 30편 11절 찬송가 446장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의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건강의 회

복 때문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기에 춤을 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또는 축제 때에 춤을 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춤은 극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쁨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 성경: 시편 30편 12절 찬송가 387장

자만하던 때에 다윗은 주를 찬송하지 아니하고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상황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창 13:18절 “상수리나무”

히브리어 ‘엘론’은 ‘강하다’는 뜻의 ‘아일’에서 온 말로 ‘강한 나무’, ‘참나무’를 뜻한다.

성경 속의 상수리나무

*아브라함과 상수리나무 -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창 12:6).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창 13:18).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렀고,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도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 아래에 야훼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상수리나무 그늘이 시원해서일까? 성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는 종종 거룩한 장소로 나타난다. 이런 거룩한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야곱과 상수리나무 -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엘라)”(창35:4).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뱃vel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몬바곳이라 불렀더라(알몬, 알몬바곳)”(창35:8).

세겜 주민의 추격을 받아 야곱은 가문에 일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뱃vel로 올라가기로 하고, 가족들이 몰래 섬기던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출발했다. 여기서도 상수리나무 아래는 거룩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니다.

제목: 의지의 대상 성경: 시편 31편 1절 찬송가 175장

본 구절은 다윗이 그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서 여호와를 강조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은 요새나 바위 등 이러한 것들 뒤에 숨겼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사는 사람은 기도 할 것이고 그분만을 신뢰 할 것이며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위급한 상황 일 때 성경: 시편 31편 2절 찬송가 299장

본 구절은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원수들은 가까운 곳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는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고난과 원수들의 압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그 배짱 하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못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 당당하게 삽시다.

*기드온과 상수리나무 - 기드온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다(삿 6:11, 19). 상수리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인 셈이다. *압살롬과 상수리나무 -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엘라)”(삼 하18:9).

압살롬은 삼단 같은 머리채를 자랑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자랑스런 머리채가 걸려버렸다. 주인은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노새는 주인을 그냥 놔두고 달아나버렸다. 염렘 있는 상수리나무가 불효막심하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정권 잡으려던 압살롬에게 화를 내린 것이다. 그는 상수리나무 가지에서 다윗의 신하에게 최후를 맞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람과 상수리나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왕상13:14). 상수리나무 아래는 기도하는 장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이다. 거룩한 백성이 상수리나무 아래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할 때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죄악이었다.

이사야는 온 백성이 타락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 시대의 여명을 보았다.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듯이 거룩한 백성이 남아 있음을 믿었다. 성도여 그대도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라.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5년 1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4 인양광운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종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25-28 담심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최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2015년 6월
1-3 전전교회(송일목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온산리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영선 원장)
13-16 김해배움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영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화국 원장)

2015년 8월
2 이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 조광수 목사)
1 온산리침례교회(최정숙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영 원장)
7-11 온누리복음회(이희우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지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정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환)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기쁨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박진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리신교지방문
7-9 살롬교회(고정민 목사)
14-16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흰돌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양화국 목사)
24-27 성일교회(이판석 목사)

2016년 2월
1-4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8-11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창종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의 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후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광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윤춘종 목사)
15-18 예복교회 불철부흥성회
23-26 초대중앙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용식 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이예제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지신학영여를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곤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9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21 소망교회(최용식 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화국 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8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22-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목포꿈의교회 기적의 대성회, 치유의 대역사 나타나

강사 조강수 목사, 갈급한 기도의 함성 '주여 내 병 고쳐주소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성도들, 한결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말씀의 강수, 은혜의 강수로 기적이 일어난 대 성회가 2차에서도 나타났다.

목포 꿈의교회(담임 이요셉 목사)에서 지난 3일(주일) 저녁부터 6일(수)밤까지 인천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를 초청 "기적의 대 성회"를 열어 또 한 번의 대 역사가 나타났다. 이요셉 목사는 "축복의 기적, 치유의 기적, 응답의 기적", 이란 세 가지의 주제로 열린 '기적의 대 성회'는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제 2차 부흥성회 '기적의 대 성회'를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대 역사를 이루셨다.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 시간 성도들을 향해 전도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외쳤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물론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은 성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함께 천국가자며' 말씀과 기

도로 무장해서 외쳐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강사 조강수 목사는 둘째 날 저녁 시 42: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며 각인시키자 많은 성도들과 병든 몸으로 집회에 참여한 환자들을 향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 했다.

또한 기적의 대 성회 네 번째 시간은 요 1:13절을 주제로 강사 조강수 목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에 갖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사 조강수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성

도입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며 복창하게 했다. 어떤 성도는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자 아이를 엎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아이가 엄마 어디가 하고 묻자 아이 엄마가 병원에 가는 거지 하자 아이는 병원에 안 가겠다며 목사님께 가자고 해서 아이를 교회로 엎고 오는데 아이가 목사님을 보자 부러진 손목을 자신도 모르게 흔들다가 그 순간 아이의 부러진 손목의 뼈가 붙었다면서 재발 믿음을 갖고 살피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성도들, 천국 백성으로 살라며 당부했다.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목포 꿈의교회 당회장 이요셉 목사는 하나님은 조강수 목사를 강사로 지난 3월 집회에 이어 7월에도 2차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고, 기적의 대 성회가 이루어졌다고 하 나며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이번 기적의 대 성회는 축복의 기적, 치유의 기적, 응답의 기적이 매 시간 일어났으며, 믿음으로 거듭난 체험과 치유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큰 역사요, 그 결과 몇몇 가정이 새롭게 등록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요셉

목사는 JTNTV(www.jtntv.kr)방송과 지저스타임즈 신문사 부이사장이기도 하다.

강사 조강수 목사는 이번 2차 집회를 통해 매 시간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실패와 좌절로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 받는 길을 열어 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 병들어 고통스럽고 아픔을 감출 길 없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으며, 타고 온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걷는 역사, 각가지의 병마의 사슬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참예된 믿음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기적의 대 성회를 통하여 나타났다.

강사 조강수 목사(인천 영광교회)는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며,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매 주일 설교가 동영상으로 JTNTV에서 전국으로 해외로 방송되고 있다.

한편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매주 목/금요일 정오에 2~3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고 있으며, 주일낮에 배 후에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식사를 3~400여 명에게 제공하면서 주일마다 현금 3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다가 하면 때로는 쌀 5kg을 선물하고, 또한 설탕 3kg을 한포씩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노인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면서 축복기도로 화목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게다가 2개월에 한번씩 인천과



서울지역에서 개척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0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후 점심을 대접하고 때로는 5kg 쌀 한포씩 전달하고, 또한 10Kg 쌀 1포씩 전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고 있다.

무료급식과 선물로 노인들을 배부르게...

한편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목포꿈의교회(이요셉 목사시무) 기적의 대 성회를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주기도원집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마쳤으며, 지난 15일(금)은 200여 명의 노인들을 초청 무료국수로 점심을 대접한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유 전도 집회를 열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자고 권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안아주며 안수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또한 조강수 목사는 선물과 경품을 추천하여 울며를 시원하게 지내라며 선물을 기증했다. 조 목사는 이어 18일(월)~20일(수)까지 부여수양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21일(목)~23일(토) 영광교회 학생, 청년회 연합수련회를 갖고 축복의 말씀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고후8:9)

고후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하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에서 울림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울림의 저주에는 가난과 질병, 고통과 눈물 그리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머리 돌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 8장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에는 그의 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으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제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이 친히 가난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눅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릿도 잡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6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 7장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생과 내경험 내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금)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하모니교회(민정철 목사) ☎(925)567-4878
2(토)~3(주일)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Serving Community교회(이재석 목사) ☎(510)909-5525
4(월)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목회자 & 재직세미나(준비위원장 이재석 목사) ☎(324)469-5840
8(금) 철야 인천 열린교회(김재현 목사) ☎(032)469-5840
11(월) 오후 부천 천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주최: 한국교회영성회복부흥성회(총재 피종진 목사)
11(월)~13(수) 인천 국제문화재단(원형정 김금숙 목사) ☎ 010-5689-0091
15(금)~17(주)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8(월) 오전 원주 사랑교회(이종인 목사) ☎(033)734-6727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성은 목사)
20(수) 저녁 유구 평안교회(김준배 목사) ☎ 010-2044-0511
21(목) 오후 가평 강남금식기도원(원정 김성관 목사) ☎(031)584-1001
22(금) 철야 파주 세계로금관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25(월) 오후 서울 은혜교회 & 기도원(이유남 목사) ☎ 010-2358-2307
25(월)~28(목) 광주 호남대학교 NYSKC Conference 한국대회(HQ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062)940-5114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2016년 7월~8월 집회일정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영광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7월 집회〉

- 7월 3일(주일저녁)~7월 6일(수) 목포꿈의교회(담임 이요셉 목사)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 061-277-0498
- 7월 18일(월)~7월 20일(수) 부여수양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304-66 ☎ 041-832-0211
- 7월 25일(월)~7월 27일(수) 충주금식기도원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573번지 ☎ 043-853-3990
- 7월 29일(금)~7월 30일(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8월 집회〉

- 8월 8일(월)~8월 11일(목) 금산기도원
- 8월 22일(월)~8월 25일(목) 철원성소기도원 (원장 박정연 목사) ☎ 033-458-5988



강사 조강수 목사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영광교회 담임목사

